

젊은 세대에는 다른 문화 코드가 흐르지 않나요?

Z세대는 MZ세대로 통칭해 묶이는 걸 싫어한다더라.

문화라는 게 어떻게 나누느냐에 따라 다양하게 구분되지. 예를 들어 나라나 문화권별로 보면 프랑스 문화나 일본 문화 같은 게 있잖아. 또 밀레니얼의 문화가 있고 X세대의 문화가 있는가 하면, 게이머의 룰도 따로 있고 인디문화도 따로 있어서 이른바 서브컬처(sub-culture, 하위문화)라고 하지.

이렇게 문화를 구별하는 기준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게 뭐라고 생각해?

언어 아닐까.

문화라는 것은 ‘언어를 공유하는 사이의 문법’이라고 봐. 프랑스 사람들끼리는 프랑스 말을 쓰고, 게임을 즐기는 사람들끼리 공유하는 언어가 있는가 하면, 덕후는 덕후들대로, 또 세대마다 자기들끼리 통하는 언어가 있지.

각 문화를 제대로 이해하려면, 그들의 언어부터 배워야 할 거야. 그래야 말이 통하니까. 기성세대도 자녀나 직원들과 어울리고 싶어서 그들의 용어를 배우려고 애쓰잖아. 다른 나라 소비자들의 심리를 이해하는 것도 쉽지 않지만, 우리나라 안에서도 세대별로 생각의 차이가 크니, 그들의 용어부터 익숙해지는 게 중요하다고 봐.

그런데 부장님이 젊은 직원들에게 괜히 신조어를 쓰면 어때? 구리지 않아? 억지로 쓴 것 같고. 어떻게 하면 자연스럽게 녹아들 수 있을까?

나도 젊은 세대를 이해하고 싶어서 보는 게 있어. 바로 만화책이야. 요즘의 웹툰이나 만화부터 보려 하지는 말고, 뿌리가